

함께가는 여성

2011. 1·2 www.womenlink.or.kr

201
호

민우ing

• 정보사냥에 나선다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이 한 간~ 한 간~
정성들여 진행한' 2010 상담 총정리!

• '나라가 출산을 장려' 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 여자들은 묻는걸 싫어한다고?

2011년 총회특집

참 재밌는 총회



2011 민우회원

소통의 시대,
세상과 호흡하자

지구본을 들고 세상을 생각하고

청진기를 들고 귀를 기울이며

확성기를 들고 소통을 꿈꾸는 민우회

※ 표지에 다 실지 못했지만 주옥같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총회 날 포토 존에서 신나게 포즈를 취해주시던 많은 회원
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함께가는 여성

2011. 1·2



02 민우ing

- 정보사냥에 나선다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이 한 건~ 한 건~ 정성들여 진행한' 2010 상담 총정리!
- '나라가 출산을 장려' 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 여자들은 묻는걸 싫어한다고?

14 민우스케치

15 생생한 시각

- 출산 기피 부담금에 대처하는 자세
- 체벌 금지로 교단이 무너진다고?

20 문화산책

23 기획

타히티의 달, 욕망의 대상

참 재밌는 총회

- 사진과 함께하는 총회스케치 총회는 축제다
- 2011년, 새로움을 약속한 김인숙과 박봉정숙에게 듣는다.
- 2011년 민우계획 한눈에 보기
- 사회변화에 맞선 '새로운 담론모색'

34 생협이야기

생협 된장과 간장, 고추장으로 요리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 보세요

36 9개의 시선

인형극으로 말하기

38 모람풍경

DASO

40 마포나루에서

위대한 시작!

42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나를 통과해 갔던 생각의 편린

45 지부소식

46 독자마당

함여 200호 기념퀴즈 정답발표!

47 민우알림



* '함께가는 여성'의 필자명은 실명과 필명을 함께 씁니다. 단, 필명만 있는 것은 필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김인숙 박봉정숙 편집인 주현정 발행일 2011년 2월 16일 통권 201호

편집위원 김가영 김민균 김희영 노재윤 이인화 오세은 정슬아 디자인 일탈기획 02-2275-844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전화 02-737-5763 전송 02-736-5766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정보사냥에 나선다

정슬아(여경鏡)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당찬 저 여성의 발걸음처럼 혹은 우리가 처음 정보사냥(?)에 나서야 했던 필연적 이유처럼 여전히 우리는 정보사냥에 힘쓰고 있다. 이제 웬 사냥이야기냐며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지금은 정보담당활동가의 역할에서 글을 쓰고 있는 나는 2010년까지 홍보담당활동가였다. 200호 특집을 준비하며 지난 참여를 뒤적일 적에 여성들의 컴퓨터 활용과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 글을 고민하던 민우회의 모습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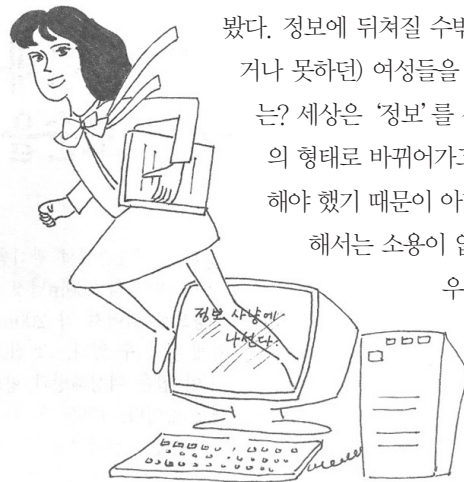
봤다. 정보에 뒤쳐질 수밖에 없던(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던) 여성들을 정보사냥터로 뛰어들게 했던 이유는? 세상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삶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니 그에 대비한 공부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만들어진 정보를 사냥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냥터에

내보내야...아, 사냥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계속 걸린다. 정정해서 무엇이 좋을까? 그래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정도로 표현하자. 여하튼 예전엔 개인들의 정보접근

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민우회가 만들어냈거나 만들어낼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다. 그래서 민우ing에 딱하니 '정보사냥에 나선다'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통의 새로운 시도는 늘 있어왔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기대가 많은 시민단체들과 민우회를 바뀌게 했으며, 회원들과 컴퓨터 활용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고, PC통신이 흥하던 시절 민우회채팅방을 만들어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온



1993. 10월호 참여 '생활의 지혜' 컴퓨터 배움마당



민우트러블
<http://womenlink1987.tistory.com>



민우트위터 @womenlink



메타블로그_에프씨의 바다방
<http://www.blogwomenlink.or.kr>

라인상에서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를 지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여성주의자들의 블로그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메타 블로그도 개설하고, 또 트위터1) 개정을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민우회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이들도 있겠지만, <함께가는 여성>과 같은 인쇄물을 통해 민우회 활동을 접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회원들 경우는 낯설지도 모를 1월 말에 새롭게 오픈 된 민우회 홈페이지2)와 2010년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개설한 블로그(방문자수 8만 명)의 성공적인 오픈에 대해 소문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다.

전 정보활동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활동가들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도 한참이 시간과 반복적인 각인이 필요했다고 한다. 한명의 정보활동가가 민우회 전체의 정보활동을 소화할 수 없듯이 한 명의 활동가가 민우회 사업을 모두 홍보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제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 갇혀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과 클릭질의 여행에서 민우회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트위터(Twitter)는 무료 소셜 네트워킹 겸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이다. 140 글자의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구를 맺거나 속보를 전하기도 한다.

2) 바뀐 홈페이지와 회원공간 모람세상에 대한 이미지는 함여 뒤쪽표지 안쪽에 실려있다.

3) 스마트폰(smartphone)은 PC와 같은 기능과 더불어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 전화이다(출처: 위키백과). 영어 낱말 스마트폰의 본뜻이 “똑똑한 전화”인 만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이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출처: 위키백과).

“여경도 트위터 해?”

“아, 민우회 꺼” “아.....(당황함)”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3)을 사용한지 1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트로 장보러 가는 것 마냥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인터넷만 하는 정도인 내가 정보활동가가 되면서 트위터라는 것을 알았다(지금도 어리바리하지만). 국회의원, 유명인사(연예인 포함) 등의 SNS4)활동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졌다. 그 반열에 민우회도 슬쩍 발을 들여놨다. 민우회는 1,069명의 개인과 단체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팔로잉), 1,103명의 개인과 단체 등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팔로워). 블로그를 통해 발행되는 글들은 트위터를 통해 민우회를 팔로잉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며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에 ‘안녕?’ 을 외치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놓으니 책임도 막중해지기도 하고 사실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댓글과 에피소드들을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요즘 민우회는 어떠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했으니 더 많은 민우온라인공간을 찾는 회원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싶다. 시작을 하였으니 자리를 다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상상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들어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늘 떨림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외침에 대한 대답이 들려오는 순간이 기대된다. 이상 끝! 뽕!

여경鏡 ●

실 온라인보다는 얼굴보고 회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트위터를 하신다면 @womenlink를 팔로잉해주세요!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이 한 건~ 한 건~ 정성들여 진행한’

2010 상담 총정리! – 상담통계와 분석

최김하나(하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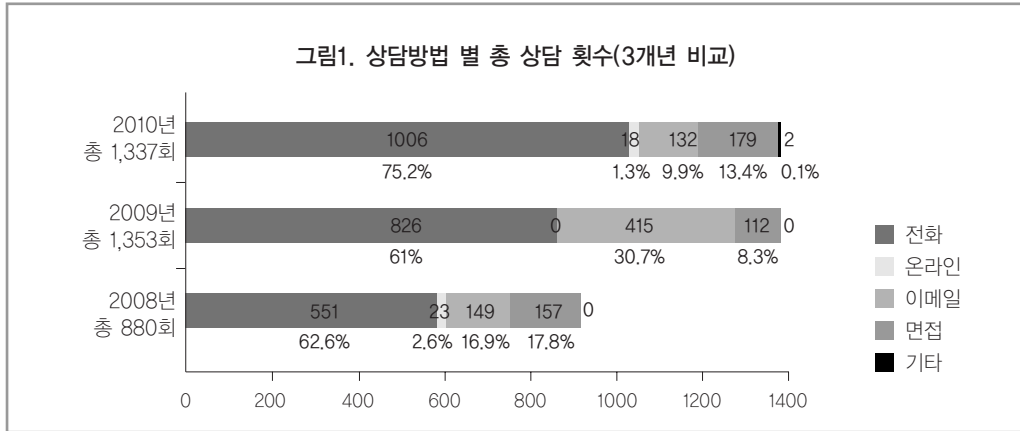
2010년에도 성폭력상담소는 열심히 상담 활동을 했다. 주되게는 성폭력 피해 이후의 상황을 지원하고 지지했고, 가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주변인들을 상담하기도 했으며, 간혹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활동은 상담소가 진행하는 대표적 일상 업무이다. 이는 다시 말해 상담 활동 없는 상담소는 떠올릴 수 없지만 동시에 상담업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역시 그만큼 쉽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상담활동은 상담소가 우리 사회의 성폭력 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계획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굉장한 의미로서 지난 1년간 줄기차게 진행해온 상담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하는 유익한 페이지를 여러분은 지금 마주하고 계시다.

전화 상담과 면접 상담 증가 및 ‘포털사이트 공개 게시판’ 찾아가는 상담 시도

2010년에는 총 1,337회의 상담을 진행했다(5p, 그림1, 참조). 총 상담횟수는 2009년의 1,353회에 비해 약간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이메일을 통한 상담의 공식적인 홍보

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상담은 내담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긴밀한 상호소통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공식적인 상담 통로에서 이메일을 통한 방식을 없애고 대신 상대적으로 상호 소통이 원활한 전화나 면접 방식의 상담을 적극 권유했다. 그 결과 올해 전화상담은 예년에 비해 전체 회수(1006회)와 비중(75.2%)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면접상담의 경우 작년 대비 회수(179회)와 비중(13.4%)이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10대 등의 상담 접근이 다소 차단되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자원상담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형식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공개 게시판 상담’을 시도했다. 2010년에는 18회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체 상담회수의 1.3%에 달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찾아가는 공개게시판 상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지식이 확산되는 것에 제동을 거는 효과와 더불어 공개 게시판의 특성상 당사



자 외의 사람들도 성폭력 피해 이후 법적, 의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1년에도 계속해서 공개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속 상담 내 피해자 상담 비중 증가 - 내담자 역량강화에 청신호

2010년 성폭력 관련 상담은 708건에 대하여 총 1,271회(전체 상담회수의 95.1%) 이루어졌고, 나머지 66회(4.9%)는 성 관련 상담을 포함한 기타 상담이었다(표1. 참조).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을 2회 이상 지속한 연속상담은 563회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것은 성폭력 단회 상담에서 내담자의 55.5%를 차지하던 피해자 상담(424회)이 성폭력 연속 상담에서는 63.4%(360회)로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연속 상담은 단회에 그치는 상담에 비하여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속 상담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연속 상담 내 피해자 상담의 비중 증가는 긍정적 신호이며, 상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것과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로 가해자 상담의 연속상담 횟수 증가는 가해자교육의 일환으로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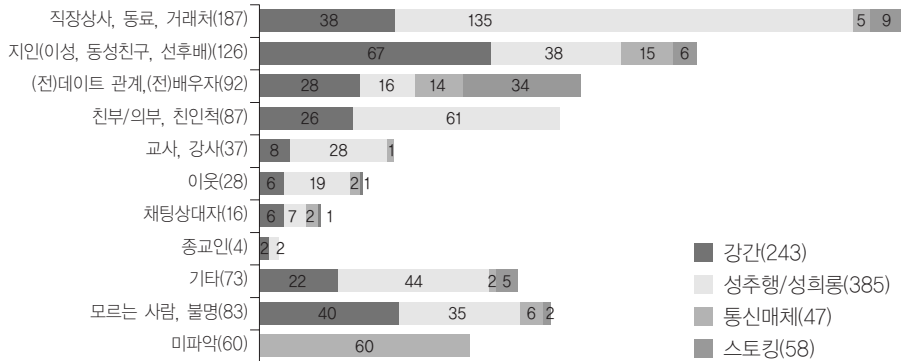
〈표1〉 내담자 유형별 단회/연속상담 횟수

	성폭력 상담				기타 상담	총계
	피해자	가해자	제3자	소계		
단회상담	424 59.9%	34 4.8%	250 35.3%	708 100%	61	769
연속상담	360 63.4%	74 13.1%	129 22.9%	563 100%	5	568
소계	784	108	379	1,271	66	1,337

가해자는 아는 사람! & ‘쿨하지 못해 미안해’ - 데이트 관계 후의 스토킹 피해에 주목

〈그림2〉를 보면 2010년 전체 성폭력 관련 단회 상담 중 피해 유형이 파악된 상담은 총 733건이고, 여기에는 피해자 1인이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중복 체크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2010년 전체 성폭력 관련 단회 상담의

그림2. 가해자 - 피해자 관계별 성폭력유형건수(중복체크 포함)



총계와 합산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자. 피해 유형별로는 1) 성추행/성희롱 2) 강간 3) 스토킹 4) 통신매체 이용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고,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1) 직장 상사 및 동료 2) 친구와 선후배 등 지인 3) 전/현 데이트 관계와 배우자 4) 친/의부와 친인척 순으로 상담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80%이상)가 친밀하거나 신뢰감이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올해도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와 더불어 기존 인간 관계에 대한 신의와 유대감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관계망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염려될 따름이다.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소의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필요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위 그래프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체 스토킹 피해의 58.6%가 전/현 데이트 관계 및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58건 중 34건이 해당) 변화된 관계에 책임 있게 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빌미로 상대를 괴롭게 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상황까지 치달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특히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연애평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비밀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거나 둘만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11년에도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요령 및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숫자로 다 하지 못한 말들

- 2010년 상담소의 식스센스

상담통계수치는 방대한 양의 상담활동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상담이 각기 담고 있는 깊이나 색깔을 드러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올 한 해 상담원들에게 ‘딱 걸린’ 상담 경향 중 한 가지는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특성의 변화’이다. 그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주로 지위와 권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 할 권리를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됐던 특성이 있다. 직장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인 만큼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근 상담에서는 발생 배경에서 그 맥락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회식 후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강간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인데 이 때 가해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있을 법한 로맨스 내지는 해프닝’으로 여기는 식의 ‘데이트 성폭력’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와 위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성적의사소통 실패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다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성폭력에 비하여 ‘직장’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가해자에게는 가해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에 반해 피해자에게는 피해 이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기존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와 동일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정한 소위 ‘김 부장이 미스 리의 몸매를 칭찬하는 문제 행위’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적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하는 내용의 교육과 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향은 10대 여성의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경계의 애매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주로 10대 여성의 보호자들, 즉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크게 늘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과 감수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주로 보호나 분리조치에 맞추어지다보니 10대의 성에 대한 보수적 사고방식도 따라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10대들의 성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딸의 연애 관계나 성적 행동을 당혹스러워 하며 상대 남성(또래나 선배 혹은 성인)을 비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지에 관해 상담을 요청한다. 이 경우 내담자들이 요청하듯이 모든 상황이 성폭력 혹은 성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시에 모든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성별과 지위의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점을 설명해야하는 과제가 상담원들에게 주어진다.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라는 말로 상담을 맺지만 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 절실하다.

이렇듯 2010년 상담활동은 기존의 성과를 탄탄히 다짐과 동시에 내담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내담자를 역량강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도했음을 확인하였다. 2011년에도 일상에 촘촘한 균열을 낼 수 있는 상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바란다. 

하나 ●

날마다 배울 것이 늘어가요 :v):

‘나라가 출산을 장려’ 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이소희(바람)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2010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한 해 동안 상담했던 상담의 내용을 2010년 12월, 2011년 1월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성 노동자의 오늘을 진단해보았다. 2010년 상담은 총 355건이었으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출산, 직장과 가정의 양립 관련 상담이 23.4%(83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0년 정부는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상담 경향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들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의 현실 인식과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고 1순위, 장거리 발령,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퇴사압력... 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변하지 않는 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들 현실

- 2009년 9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사용 이후에 11월에 복귀를 하였다. 강원도 동해에서 10년 동안 일했

는데 출산 휴가 후 복귀하니 속초로 발령을 냈다. 집에서 속초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 많이 힘들어도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전화를 해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 내일 당장 발령지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은 어떻게 서울로 출근지를 옮기겠는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퇴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해고 1순위라는 말이 전해지고,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더라도 퇴사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복직 후 원거리로 발령 내거나 지금과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010 여성노동 상담경쟁분석’

- ✓ 비(非)정규직 - 悲(T.T)정규직 = Be정규직
- ✓ 성차별 x 성역할고정관념 x 위계구조 x ... = 성희롱
- ✓ 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따로 노는 정부 저출산 정책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q5050@womenlink.or.kr
<http://counsel.womenlink.or.kr>

차별적 처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백한 성차별적 불이익이며 이러한 관행들이 근절되어야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들이 일터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연차휴가가 없다?!

- 2009년은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0년 1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을 시는 아예 결근을 결제를 받으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복귀 후 1년간 연차휴가를 하나도 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는 ‘결근을 결제’ 받아야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육아휴직이 아예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노동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보상자원’이라는 해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사람들은 현저히 적은 연차를 부여받거나 아예 한 해 동안 휴가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도입 취지를 재확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으며, 제도로 마련된

● 민우ing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사용조차 어려운 지점이 있다.

- 비영리법인 협의회에 다니고 있는 계약직여성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라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해당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산후휴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애매해서 재계약이 안 될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쓰고 나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힘들어도 출산휴가 봐서 참으려고 여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에서야 이러는 게 참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던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부되어 임신출산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어 90일의 기간마저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나라가 출산을 장려' 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출산 위기'를 위시하여 여성노동자의 단시간 노동을 확대 하려고만 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여성노동



“위 그림은 몇 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분석으로 사용했던 일러스트 컷이다. 또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에 씁쓸함이 남는다.”

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허황된 정책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 된 ‘시크릿가든’의 주원리와 라임 이도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각종 언론과 매체를 이용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만들고 있는 정부에게 따끔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이기를 거부한다! 이보시오 2MB!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어떤지 먼저 보시오!” 2011년에도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거부하며 당차게 걸음을 내딛는다! 아갓! **안**

바람 ●

아, 2011년도 정말 폭풍같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숨 한번 가다듬고 일렉스일렉스 여윌루자! 바람처럼, 강물처럼

여자들은 묻는걸 싫어한다고?

이윤소(윤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나 : 너 왜 약속 안지켜? 나랑 지난번에...

너 : ...

나 : 너 지금 뭐하는거야!

‘...’에 생략된 것은 키스. ‘나’와 ‘너’는 연애편제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 ‘너’는 나에게 키스를 해서 나의 말을 중지시켰다. 나는 무척 화가 나서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너’는 씨익 웃으며 연인들의 싸움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살아오면서 불쾌했던 일 Best 5에 들어갈 만큼 기억이 생생하다.

이 사건을 떠올리다보니 비슷한 경험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한다. “오늘은 싫어”, “그럴 기분 아니야”, “몸이 좋지 않아” 등의 말로는 막을 수 없었던 순간들... 5번 척추가 6번 척추가 되도록 때려쥐도 시원치 않을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여성의 “싫어”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내뱉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일방적인 스킨십을 하는 세상의 수많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내레이션 : 여자들은

남자모델 : 키스해도 돼?

내레이션 : 묻는 걸 싫어한다. 사고접수 할 때마저도

자막 : 급한데 자주 물어보는 ARS는 이제 그만
24시간 상담원이 전화 받는 올리브 전용 핫라인 서비스

내레이션 : 급한데 자주 물어보는 ARS는 이제 그만
24시간 상담원 사고접수 서비스

뭐라고? 여자들은 묻는걸 싫어한다고? 메리츠화재에서 지난 10월부터 방송한 '올리브온라인자동차보험'의 <전용하라인 편> 광고의 내용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 보험은 여성운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What Women Want, 여자 마음을 아는 보험"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용하라인 편>을 보면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진정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하다. 실제로 여성들은 상대의 질문에 불쾌감을 느끼기보다, 앞의

나의 경험에서처럼 일방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코드가 소통, 존중, 배려라는 것을 왜 모를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이 광고의 중단을 요구했고, 메리츠화재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향후 광고의 소재를 교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광고가 중단된다고 해서 모든 것

댓글 소개

☞ 나도 보면서 좀 그렇다;;;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여자는 묻는걸 싫어하니까 묻지 말고 그냥 배려라는 식의 광고내용은 좀 아니었음... ♡ 답글쓰기

추천 17

☞ 뭘 그런걸 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라고 쓰려 했는데...
밑에 관련기사 보니 "버스기사 잠든 여성 성추행"
원지 물어봤으면 싫다...
버스기사-안장도 될까요?
여자:.... ♡ 답글쓰기

추천 11

☞ 돈벌이에 눈이 먼 광고업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그들눈에는 여성의 자존심에 땅에 처박히든 말든 그저 시선을 끌며 계약율러면 그만인거지.. 나쁜광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특이점 사회 곳곳에 스며들며 심성을 더럽힌다.. 아이돌가수의 무대, 광고, 오락프로그램.. 게임물이 도처에 성을 소재로해서 상품화하고있다.. 험스리크광고는 소녀의 입술을 훔친 아이돌 가수가 누군지가 그내용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판단력이 생기기도전에 더러운 상품전략에 오염되고 있다.. 아이들의 영혼을 잠먹는 싸구려 광고인들도 감시해주는 민우회가 되길.. ♡ 답글쓰기

추천 4

☞ 이런 광고 ..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우리나라 수준 .. 인권개념과 수준이 부족한 거 같아요 ..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죠 .. 그런데 .. 회사나 기업에 대한 배려만 생각을 하더니 .. 아니면 남자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건가? .. 여쭙든 많이 실망스럽네요 .. 민우회 말고 그렇다고 제가 그 단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대부분 달린 댓글들 보면 .. 광고같은게 참 무서운거라 ..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는 차원인가로 .. 남들 .. 막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 제기해야 할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 -- ♡ 답글쓰기

추천 3

☞ 나도 그 광고보고 기분 나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묻는걸 싫어하니..
그저 다 알아서 해주길 원하는 파동적인게 여자란 인상을 지을수 없어서..

광고만들때 여자 어찌구 할때는 한번더 생각해서
광고 만들었을 좋겠다 ♡ 답글쓰기

추천 38

☞ 방통위, 손보험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12.04 | 신고

방통위는 명박이 시종드느라 정신을 놓은 곳이고

손보험회는 자기들이 티끌만쯤도 손해 안 보려고
고객들 손해를 조장하느라 정신을 놓은 곳인데

그런 애들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라 식은 죽 먹기지!

메리츠보험홍보실로 가거나
메리츠보험에서 광고 말인 업체 가서 여직원 마누라 잡고
묻지도 않고 키스하면
좋아라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거냐?

여성단체 어찌구저찌구 하는 최질미들은 뭘지? 참! ♡ 답글쓰기

추천 4

☞ 정작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1]

광고 뒤편은 프로 중의 프로들이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가장 깊은 금지된 욕망을 드러나지 않게 (오해하더라도 교육에 의해 반사적으로 거부할) 자극하기 위해 고도의 기법을 동원한다.

여기 댓글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이다. 그게 뭐 어때냐고 하는데...
많은 광고들에 있어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장치한 심리 조작적 의도들을 스스로 깨달린다면... 더이상 그런 순진한 소리 못할 것이다...



메리츠화재 측 공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보는 시각과
해석의 차이에서 이런 의견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잘 해결되었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 공문에 '여성
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
혀 없었으며, 이는 광고 크리에이티브¹⁾를 보는 시각과 해
석의 차이에서 이런 의견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
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찝찝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준 '귀신같은
누리꾼'들이 있었다. '메리츠화재 車보험광고 물의
(2010.12. 4/서울신문)'라는 기사에 달린 깨알같은 댓글들
이 있었는데, 이는 왼쪽에 소개된 것들이다.

〈전용핫라인 편〉 광고는 남성의 일방적인 스킨십과 여
성의 묵인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해 온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
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불순한 '생각'은 숨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은 늘 신중해야 한다. (물론 방송사, 광고주도 여기에 포함
된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청자를 즐겁게 만
들어주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콘텐츠 안에 올바른 가
치를 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 생각의 차
이는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광고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고무적이었고, 누리꾼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묻는 걸 싫어하니까 묻지 말고 그냥 해
버리라는 식의 광고내용은 좀 아니었음' '그저 다 알아서
해주길 원하는 피동적인 것이 여자란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서 기분이 나빠다' 등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활동 해달라
는 응원의 글도 있었다. 사실 악플이 더 많았지만(!) 그건
상관없다. 단 한 명뿐이더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나눈다
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만들
기' 그 발걸음이 참 즐겁다. **ㄹ**

1) 광고 크리에이티브(advertising creative)란 광고의 창작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광고기획 과정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출처 : 위키백과)

윤소 ● 두근두근. 함여에 실리는 나의 첫 번째 글.
"너의 글에는 라벤더 향이 나"라고 '김주원'이 이야기해주었으면 좋겠다.)

○ 민 우 스 케 치

●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연극이 있는 시간



2010년 민우회가 진행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프로젝트를 총화하는 자리로 1부 토론회, 2부 활동보고 및 영상·연극 상영이 있었습니다.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우회의 노력은 2011년에도 계속 됩니다. 쭉~욱,
11월 25일, 성미산 마을극장

● 회원송년회, <명랑한 민우생활>



2010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민우회 송년회로 고고생하는 것 회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소모임의 장기자랑도 보고 민우회의 1년을 되돌아보았답니다. 2011년 송년회도 우리 모두 함께해요! ><
12월 10일, 동대입구역 우리함께

● 2010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 및 푸른미디어 시상식



2009년 파일럿 대회를 시작으로 한 초등학생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가 뜨거운 참여 속에 치러졌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의 내용을 담은 글들은 미디어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미디어 시상식이 올해도 이뤄졌는데요, 공정한 방송,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칭찬하는 따듯한 자리였습니다.
12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비밀업서!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

2010년 한 해 동안 '비밀'을 매개로 자매애와 동성애란 키워드로 진행한 캠페인 '여자, 여자 사랑해요'가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공개 라



오방송을 제작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업서는 무려 총 290매! 차별 없는 사랑을 위한 한국사회의 바탕이 탄탄해지고, 혐오와 차별이 금지되는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단의 명랑한 활동도 계속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새해 첫 주,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법무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32개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할 인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면서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1월 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흥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만나다!



한 달에 75만원, 하루식대 300원을 받고 일하다가 1월 2일 새해 벽두에 무더기로 해고된 흥대 청소·경비노동자의 고용승계추구를 요구하는 서부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흥대 정문 앞에 모인 서부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의 대표, 활동가들은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비(非)정규직 노동자들이 BE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1월 14일, 흥대정문

● 온라인 캠페인, '몰카를 추포하라'



최근 상담소에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몰카를 추포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행동요령제안 내용은 민우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기피 부담금에 대처하는 자세

오영식(수풀)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모임 작성삼일

주민 모임 송년회에서 있었던 일

나는 사회복지사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고 인형극 자원봉사 동아리나 동네 음악회 추진위원회와 같은 작지만 소중한 주민 모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주로 직장인 일과시간(09:00 ~ 18:00)에 일을 하다 보니 동네에서 만나는 주민 대상층은 30~50대 전업주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 결혼해서 자녀도 둘 이상씩은 있으신 분들이다.

얼마 전 내가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 송년회 자리에서 주민 분들과 맥주 한 잔 하다가 “출산 기피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창양 카이스트(KAIST)대 경영대 교수가 지난 2010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출산 기피 부담금”을 제안하는 사설을 기고하였는데 주민 중 한 분이 그 사설을 보고 우연히 얘기를 꺼내신 것이다. 민우회 회원인 나로서는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평소 만나던 주민 분들은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어떤 생각이실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지나가려던 “출산 기피 부담

금”이라는 화제를 덩석 물어보았다.

수풀 : 아니 근데 출산 기피 부담금은 또 뭐래요?

주민A : 아, 그게 뭐냐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낳기 싫어하잖아. 일 나가는 여자들도 많고 애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하다고 뉴스들마다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 애 낳기 싫은 젊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차라리 당당하게 애 낳지 말고 애 안 낳는 대신에 세금 더 내라는 제도인거 같더라고.

둘째 자녀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주민A씨가 오징어 튀김을 씹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음 편하라고 내는 세금이라니?

수풀 : 네?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세금 낸다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리고 벌금 내는 거 같아서 세금 내면서 기분 더 나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함께 낳고 함께 키우겠습니다

2010년, 더욱 확대된 출산·양육지원대책과 만나세요

1960년대 : “뒹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197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9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2000년대 :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싶어요”

...

그리고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이 함께 낳고 함께 키우겠습니다”

주민A : 하긴 나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하튼
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지 않아? 기분은 좀 나쁘
더라도 출산율은 올려야지.

주민B : 그래! 이렇게 애들 안 낳으면 20년, 30년
뒤에 세금은 누가 내냐고... 우리들 나이 먹고 노인
되면 노인복지혜택 받아야 하잖아? 복지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식들 안 낳겠다면 나중에 그 자
식들이 낼 세금 미리 낸다 생각하고 그 출산 기피
부담금인가... 그거 내면 되겠네.

낳지도 않은 아이가 낼 세금을 미리 낸다?

옆 테이블에서 자녀 셋을 두신 주민B씨가 저출산 얘기를
듣고 드시던 맥주잔까지 들고 와 우리 테이블에 앉으셨다.
약간은 흥분하신 듯 탁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맥주잔이
심하게 출렁거린다. 나도 일단은 직업이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인지라 “부자감세액이 얼마든 서민들 주
머닛돈 터냐”며 주민B씨에게 정색하며 반박할 수가 없어
조금은 순화된 적당한 표현을 고민하느라 반박할 타이밍
을 놓치고 머뭇거리던 찰나, 평소 과묵하신 주민C씨가 한
마디 거든다.

주민C : 언니, 자식 키울 돈 없어서 자식 못 키우
는 사람도 있는데 벌금 내라니 너무 하지 않아?
또 불임부부는 어쩌라고?

주민B : 아니 불임부부는 정상참작을 해서...

그 순간 한참 격해지던 테이블 분위기가 싸하게 식으며 너
나 할 것 없이 주민D씨의 눈치를 살폈다. 생각해보니 옆

테이블의 주민D씨는 본인 의지는 있으나 결혼 몇 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한 달째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있었다. 아이쿠, 이런…….

주민A : 아아, 그래. 애 안 낳는다고 치사하게 무슨 세금이니. 차라리 내가 하나 더 낳을 테니 나 오늘 술자리 회비나 깎아줘. 하하하.

분위기가 어색해질 새라 주민A씨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한바탕 웃음을 끌어냈다. 그러다 대화 화제는 주민C씨의 무뚝뚝한 둘째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로 흘러갔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대화였지만 이 날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은 나에게 꽤 인상적이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을

첫 번째 이유는 나와 생각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민우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낮익고 편안한 일상의 공간이지만 오히려 저출산 정책과 같은 대화를 하기에는 낯설기 그지 없는 직장 공간에서 이해관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진 대화였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의 두 공간, 민우회와 직장 사이에는 마치 오래된 우유 표면에 지방막이 생기듯 경계를 가르는 벽이 두꺼워지고 있었다. 여기는 민우회니까, 여기는 직장이니까 라는 이유로 나는 두 공간 사이의 소통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이유는 일면 균일해 보이는 공동체(예를 들면 동아리와 같은) 내에도 이렇게 다양한 입장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던진 강자의 논리에 내 주변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금 더 약자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겠는가.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부터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타공인 민우회 홍보대사인 나로서도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C씨에게 한국여성민우회 후원회원 가입서를 내밀게 될 날을 상상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안**

수필 ●

경계를 넘어서려는 민우회 홍보대사

체벌 금지로 교단이 무너진다고?

조영선 ● 경인고



물음을 던지다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 2010년 2학기부터 서울 시내 학교의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체벌금지 발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장풍 교사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대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급작스러운 조치라는 이견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조심스러운 반대 의견은 체벌 금지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작년 11월 이후 몇몇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 폭행사건이 언론에 가시화되면서 몇몇 교육단체의 ‘체벌금지 불복종 운동’이라는 해외토픽에 날만한 선언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정말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체벌 금지로 인해 아이들은 안하무인격으로 날뛰고 있는가? 정말 학교는 체벌금지 하나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가?

체벌 금지 조치 이전에도 체벌은 제한된 교사들의 수단이었다. 이미 지나친 체벌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심해지면서, 교육청에서도 지나친 체벌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시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 즉 체벌금지 조치 전에 교육청 입장은 ‘교육상 필요한 체벌은 공식적으로는 허용하되 민원이 나지 않도록 살살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체벌을 일상적인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사는 체벌을 해도 민원을 낼 엄두가 안 나는 무서운 교사이거나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책임을 맡고 있어 ‘체벌할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생활지도부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체벌’의 우산 속에 몇몇 교사들이 ‘손바닥 때리기’ 정도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육상 필요한’, ‘다소 경미한’ 체벌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교사에게, 어떤 상황에서 걸리느냐에 따라 다른 체벌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은 뭔가 잘못해서 맞았을 때 그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옆 반 선생님은 봐주는데 선생님은 왜 때리느냐’는 불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때릴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물리적 힘이 센 생활지도부의 무서운 교사가 때리면 ‘그럴만하다’고 여기지만 그보다 힘이 약한 교사가 체벌을 하면 더욱 반항했던 것이다. 즉 체벌은 어떤 학생이든 어떤 교사든 명확한 잘못이 있을 경우

남김없이 당하거나 행하는 사법체계속의 징벌이라기보다는 학교 안의 권력관계에서 물리적 힘이 있는 사람이 ‘생활지도’라는 ‘권위’를 더하여 행사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결국은 ‘맞을 만한 것’을 해서 맞는 일 보다는 ‘때릴만한 사람’을 만나서 맞는 일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합법화된 힘의 질서에 노출된 학생들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체벌 금지, 그 이후

체벌 금지 이후 언론에 가시화된 교사-학생 간 폭행 사건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교사들이들이다. 약자로서 폭력을 당연하게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때릴만한 위치’가 되었을 때 자신의 폭력적 근성을 드러낸다. 그것이 교사들을 향해서는 만만한 여교사이거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사인 경우가 많다.

또 체벌을 통해 잘못을 가리는 정의의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르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서로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대꾸야’라는 말로 묵살되었던 학생들은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정당한 수단으로 표현할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체벌 금지 이후 언론들은 마치 학생들이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되어 날뛰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체벌’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짐승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시키면서 입시 공부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학교, 성적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부모, 평생 남을 돌보지 말고 경쟁할 것을 주문하는 사회가 아닌가?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다시 학생들을 때릴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다. 힘 있는 남교사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학교의 ‘무서운 아이들’을 ‘힘’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 계속 된다면 영원히 ‘힘’이 권위를 유지한다는 질서 자체는 더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간은 권위가 유지되는 듯하지만, 학생들은 더 약한 희생양을 찾아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교권을 세우는 일은 어떤 식의 폭력이든 학교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 뿐만은 아니다. 최근 민노당에 소액을 후원한 교사들이 교직을 박탈당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기부조차 금지당한 교사들이 어떤 권위 있는 존재로 교단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 이외에도 교사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교육청의 지침대로 움직여야하는 비민주적인 학교 풍토,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문제집 수업을 강요하는 일제고사, 학교 공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입시제도가 교육자로서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 당국과 이 사회가 진정으로 교육과 교권을 걱정한다면 체벌할 권리가 아니라 입시에 자유롭게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평가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그리고 교사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❶

조영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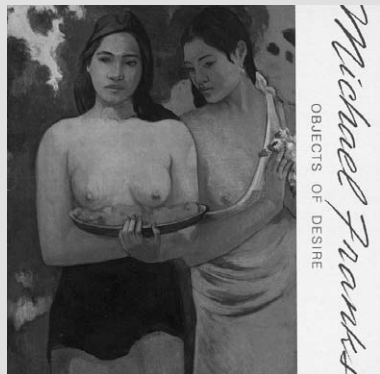
경인고등학교 교사로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 문화산책

편집자 주 : 이번 문화산책은 폴 고갱과 마이클 프랭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타히티의 달을 한 번 읊조린 후, 특히나 새벽에 머릿속을 떠도는 단어들을 100개쯤 세트로 나열하다, 너와 나와 나와 나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흔하게 당도하는 질문으로 종착하는 길지만 스스로 따라가게 되는 글입니다. 필자인 이결님은 강의하는 대학에서 민우회 발간서적 '여성주의 학교-간다'를 교재로 사용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1. 1848년 6월 7일 폴 고갱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 외할머니는 오늘날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선구적인 페루계 여성. 1951년 페루 리마로 향하는 배에서 아버지 사망. 리마의 외삼촌 집에서 기거. 1955년 프랑스의 오를레앙으로 귀환. 1860년 보조 조타수로 해군 복무. 1871년 파리로 복귀, 주식중개인이 됨. 1873년 덴마크 여성과 결혼. 10년의 결혼생활을 통해 다섯 자녀를 둔. 1883년 코펜하겐으로 이주. 1885년 파리로 돌아와 전업화가가 됨. 1888년 아를르에서 고희와 9주 동안 동거. 우울증을 겪은 고갱 자살 시도. 1891년 고갱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관습적인” 유럽 문명을 떠나 “물고기와 과일만으로 살 수 있는” 타히티, 마르티니크, 마르케사스 등지를 떠돌며 작업. 최소한 수 명의 타히티 미성년자 여성들과 관계를 맺음. 1899년 「두 명의 타히티 여인」(앨범 커버 그림) 완성. 1903년 5월 8일 타히티에서 매독으로 사망.

2. 1944년 9월 18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클 프랭크스 출생. 가족 중에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스윙재즈 등 당시의 음악을 즐겨 들음. 1958년 14세 때 처음으로 일제 마르코 폴로 기타를 29.95달러에 구입. 기타 구입에 보너스로 포함된 6주의 개인 기타 레슨은 그가 받은 유일한 정규 음악교육. 어빈 고등학교 시절 테어도어 뢰트케의 시를 발견. 자신의 기타 반주로 포크 송을 연주. 1966년 UCLA 영문학과 비교문학 전공 학사. 1968년 오레건 대학교 문학석사. 캐나다 몬트리얼 대학교에서 미국 문학 박사과정 교수 보조원 자격 취득. UCLA 영문학과 시간강사. 1970년대 UCLA와 버클리 대학원에서 작곡 과목을 강의. 이 시기 이후 대중음악·재즈·영화음악 작곡가 데뷔. 1973년 첫 번째 음반 〈michael franks〉를 발표. 1972년 실질적 데뷔앨범인 〈the art of tea〉를 워너브라더스에서 발표. 1982년 「네가 제일 필요했을 때 just when I needed you most」를



michael franks, object of desire, 1982.

타히티의 달, 욕망의 대상

이결 ●

부른 랜디 밴 워머가 백보컬을 맡은 「타히티의 달 tahitian moon」이 들어있는 여덟 번째 앨범 〈objects of desire〉 발표. 2010년 현재 16장의 앨범 발표, 세계 투어 중. 미국 거주. 행려동물의 안락사 금지를 위한 동물 권리 단체(hearts united for animals) 활동.

3. 고갱과 고흐, 혹은 달과 6펜스. 혹은 고갱과 타히티 소녀. 혹은 19세기 백인 남성과 미성년자 폴리네시아 소녀. 어른과 아이. 서양과 비서양. 남성과 여성.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서 사는 사람.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말 되어지는 사람. 글 쓰는 사람과 그 글에 나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되는 사람. 나와 너. 우리와 그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닌 것. 익숙한 것과 불편한 것. 체계와 파편. 정리된 것과 안 된 것. 인식되는 것과 인식되지 않는 것. 얇과 무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나와 나와 '다른' 것. 동일자와 차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이성과 감정. 정상과 비정상. 권력과 저항. 존재와 비존재. 로고스와 글쓰기. 근대와 전근대. 철학과 내 고민. 엄숙함과 유치함. 엄밀함과 엉성함. 효도와 죄책감. 성실과 게으름. 진리와 이데올로기. 앓을 것 있는 사람과 없는

tahitian moon - michael franks

had to get away i couldn't stand
another dreary day
of people with the same expression on
each face
guess i needed to find some secret place

i bought a round trip cheap
i broke my lease and gave away my heap
i flew down to tahiti where soft breezes blow
and i rented a grass roof bungalow

there i met an island girl so fair
she was the child of a dream
we both wore flowers in the hair
bathing each day in the stream
perfume around and everywhere
out of the sea she came to me
suddenly we were vis-à-vis
lovers beneath the mango tree
under the tahitian moon

now i'm saving my way back to you tahiti
take me in your arms again

i knew i couldn't stay
i couldn't stand another perfect day
of leaving in this paradise without an end
guess i needed to feel confused again
i promised to return
the tears upon her cheeks began to burn
she handed me a note i promised not to lose
it said love is the pain you can't refuse

• there i met an island girl so fair
she was the child of a dream
we both wore flowers in the hair
bathing each day in the stream
perfume around and everywhere
out of the sea she came to me
suddenly we were vis-à-vis
lovers beneath the mango tree
under the tahitian moon

••

now i'm saving my way back to you tahiti
take me in your arms again

타히티의 달

떠나야 했어,
이 따분한 하루를 더 견딜 수가 없었어.
이 똑 같은 얼굴들 이 똑 같은 표정들
나만의 숨겨진 어딘가가 필요했어.

난 싸구려 왕복표를 샀어.
난 집을 빼고, 내가 가진 걸 버렸어
난 비행기를 타고 타히티로 내려갔어.
거긴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지.
내 방갈로 지붕은 풀로 되어 있었어.

난 거기서 너무 착한 섬 소녀를 만났어.
소녀는 꿈의 아이였어.
우리 둘 다 머리에 꽃을 꽂고
매일 개울에서 목욕하고
어디나 향기가 넘쳐흘렀어.
우리는 갑자기 얼굴을 마주 봤지
망고 나무 아래의 연인들
타히티의 달 아래

난 지금 널 향해 다시 돌아가,
널 다시 네 품에 안아줘.

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
이 끝없는 천국에서 펼쳐지는
이 완벽한 날을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다시 혼란스러워질 필요가 있었어.
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
눈물이 소녀의 볼을 타고 흘렀어.
소녀는 내게 편지를 줬어,
난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편지는 사랑은 네가 거부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어.

• 반복

난 지금 널 향해 다시 돌아가,
널 다시 네 품에 안아줘.

사람, 신과 인간, 오성과 감각, 천국과 지옥, 신앙과 미신, 서울과 지방, 올라감과 내려옴, 스카이와 지잡대(지방 잡대 학교),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공권력과 폭력, 해군과 해적, 교총과 전교조, 한나라당과 민노당, 유명한 사람과 안 유명한 나, 정통과 이단, 신부와 마녀, 목사 and 무당, 책임감과 귀차니즘, 합리성과 자기합리화, 의식과 무의식, 도덕과 부도덕, 시민과 범죄자, 양심과 가책, 교수와 학생, 형과 동생, 오빠와 나, 아빠와 엄마, 그이와 나, 이해와 오해,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화와 야만, 헬라스와 바바리안, 중화와 오랑개, 정복과 피정복, 유대인과 아랍인, 대한민국과 쪽발이 혹은 짱개, 한(韓)민족과 미국, 내선일체, 간 나오토와 위안부 할머니, 가해자와 피해자, 수난과 희생, 나와 남, 이성애와 동성애, 마이클 프랭크스와 동방신기, 비욘세와 소녀시대, CD와 MP3, 핸드폰과 아이폰,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김정일과 나, 마르크스와 나, 이명박과 나, 예수와 나, 부처와 나, 히틀러와 나, 케네디와 나, 마릴린 몬로와 나, 고갱과 나, 음악과 국악, 문학과 국문학, 팝송과 가요, 비틀즈와 월드 뮤직, 링킨 파크와 서태지, 백남준과 나, 윤이상과 나, 아이유와 나, 응,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 우리 엄마와 나, 나와 내 속의 나,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말하는 나와 말 듣는 나, 내가 어쩔 수 있는 나와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너와 나, 그러니까, 나와 나.

4. 보편적인 것은 정말 보편적인 것일까? 서양은 보편적인 것이고 비서양은 아닐까? 보편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닐까? 보편성이야말로 문화적인 것 아닐까? 그럼 문화상대주의에 빠져야 할까? 그런데 그렇다면 수학이나 과학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일까? 서양 과학이 아니면서, 사이비 과학도 아닌, 비서양 보편과학이 가능할

까?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누가 정한 것일까? 그들은 왜 내게 그렇게 가르쳐주었던 것일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서구어를 번역하여 만든 일본어이고, 그 원래 말은 서양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에 연원을 둔 근대 유럽어이니까? 보편은 하나일까? 보편들은 없을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해주었고, 어제 내가 그렇게 외웠던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다고 말하는, 보편 · 정상 · 당연 · 이성 · 필연은 그저 가능한 무수한 보편 · 정상 · 당연 · 이성 · 필연들 중 단 하나가 아닐까? '유일한 절대적 하나의 보편성 · 근대성 · 합리성 · 정상성'이란 개념은 사실은 19세기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닐까? 21세기의 세계화처럼! 사실 우리는 복수의 무한한 다양한 보편성 놀이 · 근대성 놀이 · 합리성 놀이 · 정상성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이 세상을 보고 정말로 나의 몸을 던져 나의 삶을 다시 살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생각과 성실, 생각하는 바와 느끼는 바가 따로 노는 반(反) 지성주의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오늘 현재의 관점 · 시제로 지금 내게 드는 느낌과 생각을 다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만들기'를 통해서.

5.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 **▶**

이결 ●

철학전공. 여성들도 남성들을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기득권자인 남성들은 여성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혹은 기득권자는 기득권자 아닌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이해라는 말 자체가 때로 아니 대부분 보통은 사실상 폭력이라고 믿는, 혹은 기득권자와 피해자는 분명 두 사람이지만 아주 가끔 때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라고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

2011년
총회특집

참 재밌는 총회

올해는 매년 그렇듯 진행한 사업도 많았고, 새로운 임원선거가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총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재밌는 총회'를 만들어보고자
열심히 준비했던 활동가들과 이를 완성시켜주신 회원들의
애정 어린 미소와 말들이 여전히 아른아른합니다.
참 재밌는 민우총회 특집을 시작합니다!

2011년 총회특집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우회입니다~!! 1월 22일에 총회 실시되는
거 아시죠? 참석가능하신지요?”

“그럼요~ 참석 해야지요^^ 호호호호!”

귀에 익은 목소리, 낭랑한 목소리다. 계속되는 야근에 찢어 생긴 피곤과 신경성 위염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다. 덩달아 기분이 상큼 해진다. 문자와 메일에 전화까지 눈
과 귀가 닳게 보고 들은 내용이라 목 아플까 봐 시간이고 장소고 다~ 아니까 꼭 참석
하겠다고 했다. 동거인¹⁾의 귀가시간이 동틀 무렵이 되는 날이 많았던 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잘 아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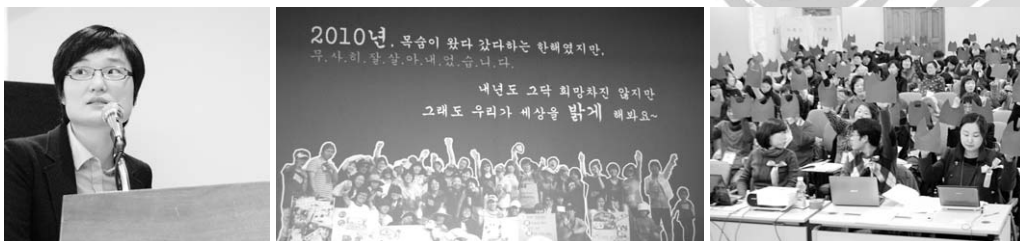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총회 날! 지각이다;;;

1시에 미리 도착해서 안부도 여쭙고 인사도 나눌라했더니 오전에 갑자기 사회복지사
대화모임 약속이 생겼고, ‘평생회원상’²⁾을 수상하는 작심삼일 멤버들을 위해 꽃집에 들
렀다오니 아슬아슬 2시 5분 도착이다. 역시나 평생회원 프마가 먼저 와있다. 아마도 조
만간 ‘함께가는 회원상’³⁾을 받을지도 모를 인물. 상을 떠나서 민우회를 사랑하는 열정
이 대단한 회원이다.

총회는 벌써 세 번째 참석(참석자 소개 영상을 보니 10년 전 총회때 오신 분도 계시던
데 세 번째라 드러내기 부끄럽다)이다.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니 벌써 강당이 만원이다.
참석자 소개가 이어진다. 민우회 지부회원들은 처음 뵈는 것 같다. 세 번째 참석이라 해
도 일 년에 한번 보니 매번 초면이 된다. 총회로 인해 지역 이곳저곳에서 아침부터 부
지런히 출발했을 아들. 뒷줄에 앉아 지부 이름만 불리니 뭔가 아쉽다. 아이스브레이크⁴⁾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나?

사진과 함께하는 총회스케치 총회는 축제다

단팻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모임 작심삼일



예상은 했지만, 선서를 시작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된다.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을 약속하는 자리니만큼 보고
와 평가, 선거 등등 보여야하고 알아야 할 게 산더미다. 그런데도 마치 짠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모습에서 민
우회의 노련함과 고생의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예산보고를 듣고 있자니 빠른 어투와 정확한 발음 사이로 졸음이 밀려온다... 총회 후기 작성의 사명을 띠고
부름드려 했으나 이미 눈꺼풀은 통제 불능이다. 앞에서 세 번째 줄, 중앙에 앉아 사회자를 바라보며 숙면을 취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설상가상 앞자리는 텅 비어있다. 동통 뭘 받아 적은건지 알아볼 수 없는 기록을 뒤로하고, 영
상을 보자며 분주해진다. 눈이 번쩍 뜨인다. 며칠간 동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피를 말리고 괴로움에 치를 떨게

했던(!) 바로 그 영상 아닌가. ㅋ 향후 3년간 민우회를 이끌어갈(?) 아니, 더욱더 치사해지고 치열해진 세상에 민우회를 내던질 대표와 이사, 감사후보들의 소개. 그리고 이어진 무대 인사. 대표후보들의 능숙하고 간결한 인사말에서 강한 포스와 역사가 느껴진다. 권미혁샘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다.



예행연습이라도 해본 듯 투표가 척척 진행된다. 지난 총선과 같은 긴장감은 전혀 없다. 줄을 서서 막간을 이용해 인사를 나눈다. 총회라 해서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일은 없다. 떠나는 이(직위만), 새로운 위치에 서는 이, 그리고 참여하는 이 모두가 웃고 즐기는 축제다. 나를 내려놓고 마음 편히,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민우회의 고유 매력이다. 그러나 박장대소하며 웃고 떠들면서도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으로 열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다. 역시 무서운 언니들! 그것도 매력이다. ㅋ



역시! 회원과 함께하는 민우회

투표가 끝난 뒤 작년총회에서 선정한 [회원아이디어공모사업_모람이 모락모락] 수상에 빛나는 다소의 유쾌한 저출산 정책 고집기 Why?와 근육의 숨결의 자기 방어 훈련은,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 여정의 결과이다. 절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고민과 성찰이 녹아든 깊은 내용의 작품들이었다. 이어진 축제의 하이라이트!! '평생회원상', '함께가는 회원상', '함께가는 모듬상'⁵⁾, '심지상'⁶⁾ 시상시간이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시간 관계로 상패전달에만 급급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 티나게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민우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분들이고, 귀한 시간과 역사를 민우회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을 분들인데 간략한 소감 발표와 인사만으로 끝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 1) 민우회 활동가 꼬까과 함께 살고 있다.
- 2) 100만원의 회비를 내고 민우회와 평~생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회원에게 주는 상이다.
- 3) 한 해 동안 손꼽히게 열심히 활동한 회원을 추천받아 드리는 상이다. 열심히 회원 모두를 드리지 못해 늘 아쉽다.
- 4) 아이스브레이크란 icebreak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말(행동)들을 뜻한다.
- 5) 활발한 활동에 빛나는 회원소모임 추천을 받아 선정된 모임에게 주는 상이다.
- 6) 민우회 활동가로 10년동안 열심히 활동한 이에게 주는 도덕도덕(?) 상이다.

2011년 총회특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기쁜 일은 우리 작심삼일 멤버 중 프마와 수풀이 '평생회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짹짹!! 회비의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아니, 중요한가? 헛!).

암튼 여유가 있어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미치게 했는가? 각자의 여러 관계망 중 민우회에 가장 애착을 갖고 최우선순위에 둔 결과일 것이다. 이는 곧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민우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우리도 함께 즐기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 아닐까.

평생회원인 수풀과 프마를 위해 작은 이벤트로 귀여운 포스터와 천냥금 화분을 준비했다. 부피도 크고 빨리 시들어 버리는 꽃다발보다 키우는 재미가 있는, 천냥금이라는 이름만큼 화려한 2011년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2011년 1월 22일의 축제는 끝났지만, "민우회와 함께한 생활이 행복했다"는 권미혁쌤의 말에서 느껴진 겸손함과 진정성을 잊을 수 없다. "민우회는 본성으로 가는 여정의 도우미 같은 존재"였다니, 그녀의 내공이 존경스럽다. 언젠가는 각자가 발견한 고유한 본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든든한 우리 3만 회원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엔 언제나 소통과 지혜가 함께하니까.^^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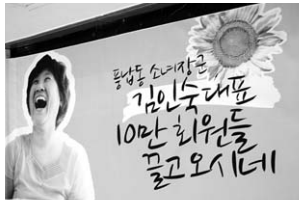
단팔 ●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나눔과 복지를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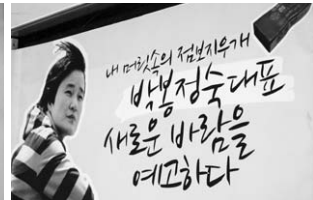
총회 이모저모



제 24차 한국여성민우회 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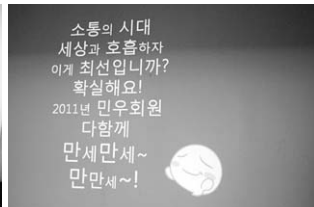
김인숙, 박봉정숙 대표 유세 현수막



작심삼일 평생회원
2인 배출 기념피켓



올해로 6년의 대표임기가 끝난 벤자민을 위한 '돈워리비해피 아듀, 벤자민!' 공연 중인 활동가들



총회장소를 탈출하려면
곳곳에 숨겨진
런닝볼을 찾아라!

대표
인터뷰

2011년,
새로움을 약속한
김인숙과
박봉정숙에게
듣는다.



“회원들이 원하는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흰칠한 키, 큰 얼굴, 시원시원한 웃음, 다른 듯 비슷한 두 명의 대표가
총회를 거쳐 선출되었다. 꽃을 사랑하고 친화력으로 사람을 머금은
김인숙 대표(이하 명균), 뽀얀 것을 거부하고, 새로움으로 사람을 이끄는
박봉정숙 대표(이하 박봉)가 궁금한 이들, 어서 모이시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자: 민우회 1인자가 되었다. 뽀얀 걸로 시작하자면, 대표되는 소감 어떤가.

명균: 문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다.(웃음)

박봉: 나는 점오톨(1.5)다. (웃음) 명균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다.

사회자: (부들부들) 민우회 대표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무겁다. 본인에게 민우회 대표란 어떤 의미인가?

명균: 어떤 식의 생각을 하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야 내가 본부로 올 때 가졌던 꿈이란 것을 만들어 볼 동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관계를 쌓은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나 조금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쯤은 내가 어떤 구상을 하건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생긴 느낌이다. 관계를 만드는 시간을 뒀었던 거다. 그리고 1인자니 뭐니 그러면 나 못산다. 부담스럽다.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나
조급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쯤은 내가
어떤 구상을 하건
함께할 수 있는
이가 생긴
느낌이다”

사회자 : 1인자란 말 농담인데 진짜 줄 아신다.(좌중 웃음)

박봉 : 대표라니 존경스럽다.(웃음) 내가 해보니 대단한 사람들이고, 책임감 있고 어깨도 무겁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도 많아지고, 친화력이 있어야 하더라. 상근자일 때는 협업이 많다. 분명 활동가들도 개인의 역량이 요구되기는 하는데 대표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더라. 그래서 걱정도 된다.

식물적인 감수성과 동물적인 판단력이 만났을 때

사회자 : 조직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직면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꼽자면?

박봉 : 명균과 서로 얘기하면 어떨까.

명균 : 아니다. 각자 얘기하자(5분간 실랑이)

사회자 : 제발 빨리 결론 내달라.

명균 : 내가 박봉에게 적극적으로 대표 파트너로 제안한 이유는 박봉은 민우회 역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은 민우회를

거처 간 회원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다뤘었던 많은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대표로까지 오면서 어우러져서 발휘가 된다면 민우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나도 더 편할 것이고.(웃음)

박봉 : 개인적 강점 말해주면 안되나?

명균 : 난 박봉을 보면서 잘 웃는다. 남들이 막 감동할 때 꼭 반전이 있는 얘기를 한다. 남과는 다른 재치로 분위기를 확 깬다.

사회자 : 욕 아닌가.

명균 : 아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파열음을 낸다. 통쾌해지고 시원해진다. 처음에 대표직으로 왔을 때 박봉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세 보이고 잘난척하는 느낌. 그런데 점점 부드러움을 알아간다. 민우회의 새로움과 활기, 참신함을 만드는데 박봉이 일조했을 것이다.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더 찾게 하고, 그런 개인의 성격이 분명 민우회 전체 조직문화 안에서 녹아났을 것이다.

사회자 : 명균의 장점은 무엇인가?

박봉 : 사실 이런 얘기 민망해서 잘 못한다. 명균은 의외로 착하다.(웃음) 인간적이다. 연민이라고 해야 하나.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잘한다. 어떤 사안이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때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사회자 : 착한대표. 어감이 참 좋다. 서정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 명균은 식물 같은 느낌이다. 큰 나무 같다. 가령 플라타너스가 떠오른다. 박봉은 동물 같다.(웃음)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면.

명균 : 내가 가진 대표로서 큰 결격사유는 구체



화된 꿈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리로 갑시다.’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꿈이 안 그려진다. 그래서 주저된다. 분명히 회원과 활동가가 함께 꿈을 그려가야 하는데 또 나름의 부담이 생긴다.

박봉 :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면 된다. 말로만 하는 공약은 의미가 없다. 함께 보여주자.

‘과정’과 ‘위로’를 잊지 않는 운동

사회자 : 박봉은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 향후 민우회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한마디 해준다면?

박봉 : 민우회에 95년에 들어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열심히 투쟁해서 법제정을 이뤄내거나 소송에서 승리하는 일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패배한 싸움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었다. 누구와 어떻게 싸워갔고 함께 싸우는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였다. 여성운동,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가치와 소망은 과정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전이라면 민우회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민우회와의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을 외부로 뿜어내고 확산시키는 조직으로 늘 역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착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회원의 관점을 잊지 않기 위해

사회자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봉 : 대표라고 거리두지 말아달라.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도 당황해하지 말아달라. 알고 보면



나 쉬운 사람이다.

명교 : 대표 첫해에는 막연함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 해에는 광우병이 터지고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가 가장 두려웠다. 그때는 무조건 살아남는게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훌륭하게도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작년에는 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활동가들에 대해서 자신감 만땅이다. 회원들이 평생회원 가입부터 소모임 활동,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활력이 느껴진다. 올해는 지난 3년간에 느꼈던 부담은 없다. 그것보다는 내가 상임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든다. 또 문득 회원들이 원하는 대표는 누구일까 고민도 된다.

박봉 : 회원이 원하는 대표라면 회원의 시선으로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조직 내부의 싸이클에 휘말리기보다, 가끔씩은 한발자국 뒤로 서서 조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거 같다. 회원들과 외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눈은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를 잘 발휘하고 싶다. **웃**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었다.
누구와
어떻게 싸워갔고
함께 싸우는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였다”

2011년 총회특집

2011년 민우계획 한눈에 보기

2011년 민우회 사업 핵심 키워드

여성운동의 새로운 담론 형성
공동사업 진행 + 지속적인 운동 = 운동의 심화
운동의 전환 모색
미래준비 및 여성운동의 재생산

운동의 전환모색

- 기초조사: 민우회원은 누구인가?
- 지부 회원 및 지역 상황 분석
-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 물, 길, 2기
- 민우회 별칭 짓기 프로젝트

기타

□역동적인 회원활동 구성

- 민우회 회원 참여 캠페인
'내가 있는 곳이 민우회(가)'
- 회원이 만드는 활동 및
비활동 회원 참여 프로그램

□지역여성운동활성화

- 지역여성정책위원회 재구성
- 지역민우회ON!
- 지부 활동가 성장 교육 프로그램

□그 밖의 깨알같은 사업들

- 미디어의 New Normal 만들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반차별 대중캠페인
- 여자, 여자 괜찮아요(가)
-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중사업 :
"간적내기 프로젝트 성형OTL(가)"

운동의 심화

-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 (공동주제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는)
이달의 토론
- 디지털전환&보편적 서비스 정책 감시
-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
- 몰래카메라 피해예방을 위한 액션 I, II
- 가해자교육프로그램매뉴얼 발간
- 명랑성생원활약서

- 성폭력 정책 분석과 제언 이동지킴이집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 본부·지부가 함께하는 민우여성학교
- 2011 '새롭게 쓰는 낙태 이야기'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사회변화에 맞선 ‘새로운 담론모색’

김인숙(명군)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지난 몇 년 이명박 정권에서 우리가 자주했던 말이 있지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농담 같지 않은 농담. 지난 몇 년간 우리의 경험으로 이젠 그 말속에 어린 비장함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획득했습니다. 회원들의 열렬한 참여와 지원은 물론이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만들고 모금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등 활력을 가지게 되는 신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을 모색하는 동안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여성노동환경은 열악해졌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평화 위협, 복지문제에 있어서의 왜곡 등으로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평등 이슈가 주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11년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시민단체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는 확실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주변화되고 있는 성평등 이슈를 만들고 사회에 제기하는 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우리의 운동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실천 활동을 만드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의 현장인 성폭력상담소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개 상담소의 지난 5년간 상담사례 속에 여성현실의 변화가 진하게 녹아있을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읽어 낼 현실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출산이란 이름으로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교수의 망발, 가족정책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성부 장관까지. 다시금 ‘정상가족’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응담론이 필요하고, 낙태에 대한 다른 접근도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반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은 코앞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문가, 회원, 활동가들이 모여 각종 토론과 세미나를 통한

분석의 기회를 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바쁠 것이니 회원 여러분도 연필을 날서게 깎아 들고 기다리시어요. 같이 하십시오.

일상의 변화, 긴 호흡으로

어떤 일이건 쉽게 빨리,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지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일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상의 변화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대중 속에 뿌리내린 운동, 대중들의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사업을 밀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같은 제목으로 진행되는 지속사업이 몇 개 눈에 띄는 것입니다.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와 ‘낙태 범죄화 대응활동’ 그리고 ‘이달의 토론’이 그것입니다. 식당여성노동자 사업은 작년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구체적인 식당문화의 변화와 노동 환경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는 식당노동자들의 호칭도 공모하고, 지자체의 정책변화도 모색하려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낙태를 둘러싼 시민들의 인식과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과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한 법의 변화를 만드는 기획을 했습니다.

작년 ‘이달의 토론’과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활동은 전국적으로 지

부들과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지역회원 등 모두가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들의 활동이 함께일 때 그 결과가 흡족해지고 대중에게 매력적인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공동사업은 이어가면서, 성폭력 상담소와 지역자치 인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 ‘아동지킴이 집 모니터링’을 추가합니다. 성폭력 이슈에 지역자치 역량까지 보태져 진행된다면 지역의 여성이슈로 조직화가 되는 경험까지 추가로 갖게 되겠지요? 종축, 횡축으로의 확장. 우리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역량확대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꿈과 비전을 위해

회원을 공부하고, 별칭을 고민하다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여성운동발전에 있어 민우회는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단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자화자찬모드 작동). 그만큼 그동안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훌륭했으며, 우리 회원들의 노력이 많이 투여되어 빛을 내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몸짓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관성에 묶일까하는 지나친 두려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도 있답니다.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2011년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꿈



과 비전을 위해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첫 번째 일은 회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바람들로 미래를 꿈꾸고 기획하고 있을까?’ 민우회원 통계분석 및 지역여성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순회 교육도 강화합니다. 회원의 욕구와 주변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운동을 전환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드는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부와 본부, 부설 다 같이 공을 들여야 가능한 사업일 것입니다.

얼마 전 신입 활동가 채용면접 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보곤 머리에 뽕 넣은 아줌마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는 다소 충격적인 조금은 익숙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올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의 역사가 배어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후 우리의 비전과 전망까지 담아야하는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공의 경험이 잔뜩 배어있는 단체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참신하게 애칭이라도 지어 새로운 입소문을 타도록 해보자는 의미로 ‘민우회 별칭 짓기’를 재미있게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령, ‘행복중심’_한국여성민우회, 혹은 ‘여자들의 친구’_한국여성민우회 등. 예들마져 이미 올드한가요? 역시 재치발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겠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것입니다. 그냥 젊

은 미래 세대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별칭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작년엔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참신한 문화행사와 함께 소액이지만 다르게 후원금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답변을 열심히 다는 사람들, 포털사이트에서 시작된 기부문화 중에 하나인 ‘해피빈’이라는 이름의 콩을 보내주는 사람들, 그렇게 모인 콩이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으로 환산되는 것을 보면서 사업비를 넉넉으로부터 지원받아 펼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과의 호흡, 그리고 그들이 보인 열정만큼 모금으로 연결되는 경험이었지요. 올해도 작년에 경험한 이 성과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대충만 살펴봐도 참 만만치 않은 사업계획입니다. 총회 전, 이사회에서는 줄어든 활동가들과 이 일을 어찌 다 하겠나며 사업을 30%이상 줄이라는 엄명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사님들, 결국 사업을 더 늘려야만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보며 ‘아! 우리가 해야만 하는 혹은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충만하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도 되었으니 잘 해봐야겠지요? 회원님들 우리 잘 해보아요. 전화 많이 갈 것입니다. **명군**

명군 ●

추위로 생각하기에 따라 즐거울 만한 거리일 수 있겠죠?
한강이 팽팡 얼어, 강의 동쪽 끝에 있는 집에서 서쪽 끝 사무실까지
얼음 위를 걸어 출근하는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 생협 이야기



김현정

● 여성민우회생협 홍보위원장

조금 지나면 음력 정월입니다. 설날도 지나지 않았는데, 음력 정월 이야길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추수를 마친 후 겨울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콩을 푹 삶아 절구에 빻아 메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 단단하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황토방에서 숙성시킨 후, 새끼줄에 매달아 잘 말립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기다려 음력 정월이 되면 장을 띄

웁니다. 예부터 장맛은 정월 장이 으뜸이고, 그중에도 말날에 담근 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성민우회생협은 메주 ‘도’ 공급합니다. 편리함을 찾는 요즘 된장과 간장이 아닌 메주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함께 가는 여성〉에서 메주를 공급받아 장을 띄우자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장을 띄

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개가 만들어 진 된장과 간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합니다. 장이 맛있어야 음식의 맛이 깊고 그윽해 집니다. 엄마의 맛, 시골 할머니의 깔끔한 맛이 바로 이 장맛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콩과 바람, 사람의 손과 노력과 시간이 만든다는 장을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통 발효식품인 장을 ‘발효’가 아닌 ‘분해’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 맛은 콩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염산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면 사흘 안에 간장을 똑딱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원료도 문제입니다. 콩 전체가 아닌 기름을 짜내고 남은 콩깻묵(대두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된장은 그나마 전통 방식에 가깝게 충실하게 만들지만, 된장의 연한 갈색을 유지하기 위해 표백제와 보존료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존료와 함께 색소를 사용하는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내려면 전통 방식에 충실하게 발효시켜 만든 간장과 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생협의 된장과 간장, 고추장은 국내산 콩과 천일염을 사용해 전통 방식을 충실하게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이 너무 시중 장맛에 길들여져서 생협 장을 이용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곤 하지요. 그래서 생협 장을 이용하는 노하우를 살짝 공개합니다.

제대로 된 된장 맛을 낼 때

재래된장은 짭짤만 나는 듯 해 처음 먹으면 힘들 수 있습니

다. 콩과 천일염으로만 만들어서입니다. 시중 된장의 성분 표시를 보면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갔나 싶어, 깜짝 놀랄 겁니다. 재래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꾸준히 먹다 보면, 첫맛은 짜지만 끓일수록 담백한 맛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담백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좋은 된장 2큰술과 재래된장 1큰술 비율로 섞어서 끓입니다. 아욱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등을 끓일 때는 재래된장으로 오래 끓여야 제 맛을 낼 수 있답니다.

무침요리는 만나식품 찹쌀고추장, 국과 찌개에는 ‘좋은마을’ 고추장을!

‘좋은마을’ 보리고추장과, 찹쌀고추장을 처음 맛보면 달지 않아 놀랍니다. 그래서 시중 고추장 생각하고, 무침 요리 등을 하면 생각했던 맛이 나지 않아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무침요리나, 볶음요리에는 조금 단맛이 나는 만나식품 찹쌀고추장을 사용하고, 고추장국과 오징어찌개, 알탕, 동태찌개, 매운탕 등 찌개에는 단 맛이 적은 ‘좋은마을’ 보리고추장이나 찹쌀고추장을 이용합니다.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맛에 참 일관성(?)이 있죠? 모두 떡볶이 양념 맛(?)이 난다는 것이죠. 먹고 나서 화가 나죠. 우리집 아이들도 처음 찌개나 국 맛이 밍밍한데,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익숙했던 시중 장맛은 이제 잊고, 생협 된장과 고추장맛에 익숙해지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요리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올해 주방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장은 모두 치우고, 생협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냉창고에 채워 주세요.

김현정 ●

보글보글 김이 나는 찌개가 생각나는 글!



마중물의 시작은 2009년 여성주의 전문극단 양성과정을 통해서였다. 생각지도 않게 시작한 연극의 끈은 민우회로 이어졌고 막연했던 정의들이 생활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민우회의 일원이 되고 마중물이라는 소모임을 통해 연극에 대한 작은 열망 하나를 채워 왔다. 사람이 하는 극과 달리 인형극은 인형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은 매력이 있다.

사실 요즘은 문화센터다 뭐다 해서 문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하지만 민우회의 마중물은 그 말의 의미처럼, 무언가를 더 끌어내기 위해 마중 나가는 물같이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과하는 길을 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여성'이라는 존재 가치와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인간으로 공존하는 삶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성역할을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생활양식이 아닌, 평등한 생활양식이길 희망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성평등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모임이다. 하지만 2010년의 공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교육인형극'이 우리 아이들에게 천천히 물드는 꽃물처럼 조금씩 배어들 것이고 우리 또한 성장하리라고 믿는다. '여성주의'라는 다소 생소하고 현학적인 문구로 설(說)하기보다는 연극이라는 매체로 우리들 삶에 마중 나가 그들의 삶에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연극 팀이 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다

강신우²⁾ ●

요즘은 엄마들이 쿠팡치킨이나 떡으로 아이들 책거리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반 아이의 엄마가 있어 '마중물' 이야기를 했다. 책거리 비용으로는 작으나마 기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기로 학부모임원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마쳤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 2학년과 4학년에서 공연신청을 받았다. 인형극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연 준비에 돌입했다. 마중물은 다 모여도 4명. 적은 인원으로 인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조금 버거운 일이다. 다행히 극단 로기나래 대표님과 회원들이 함께 만든 스피지 인형이 있어서 '수민이의 곰 인형'으로 공연 기획을 했다.

빨강머리 앤과 송명희 선생님, 웃음치료사인 민경쌤, 그리고 정화쌤이 스텝으로 도와주셨다. 아이들을 위해 공연한다는 기쁨, 뜻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보람, 또다시 공연 할 수 있다는 것에 흥분! 인형극 공연이라는 만만치 않은 일에 그림 그리고 대사 맞춰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고...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서 (아이들은 집에 방치하고^^;) 오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며 모두가 하나가 된 듯 뿌듯했다. 전에는

인형을 만드는 과정부터는 참여하지 않아 조금 겉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점점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건 그 만큼 일에 애착이 생겼다는 것이 아닐까?
드디어, 공연 전날 준비를 마치고 전원 몸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결전의 날 2010년 12월 23일, 결전 장소 인천남동초등학교! 다행히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고 무대장치를 하면서 이걸 완전히 노가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모두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며 공연에 임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인형이 너무 예뻐요!" "인형 진짜 직접 만들었어요?"

2학년 공연을 끝내고 서로 안도의 숨을 쉬며 우리가 한 말은, '이거 할 만하네?' 4학년들의 반응도 좋아서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 아이들에게 한 학기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들이 선물을 주는 거라고 하며 공연을 마쳤다. 지금도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너무 행복하다. 



1) 빨강머리앤(남혜연님)은 운영위원으로 인천여성민우회의 맥가이버입니다. 마중물의 재봉사, 목수, 전기공이고 꽃꽂이도 잘하시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뭘지 모를 팔방미인이십니다.

2) 강신우선생님은 마중물 열혈회원입니다. 2008년,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민우회를 찾아오셨고 민우공부방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명철하고 속 깊은 Decision 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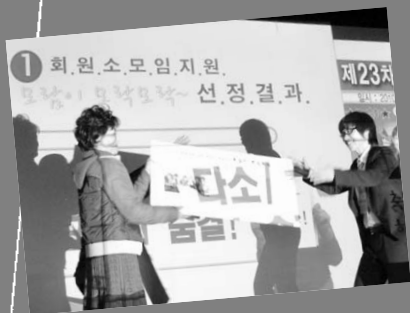
absolutely 카리스마 작렬

피우는 꽃은 달라도 한 나무의 가지 같은 Sisterhood

압도적 Overwhelming rank...

다소를 몇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당신을 천재다!
다소를 몇 줄의 설명으로 다 알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오스칼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모임 다소



하!하!하! 알면 알수록 모르는게 더 많아지고, 오랜 시간 밖에 서건 안에서건 다소를 지켜본 이들일수록 어느 하나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래서 나조차도 찢찢 매개하는 다!소!

다들 아시겠지만, 다수의 보편적 권리에서 소수의 다양한 권리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들의 소소한 즐거움, 그래서 다소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소, 다~소 하나 했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민우회가 장충동에도 있었다는데, 다소의 명맥이 그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하. 가장 오래된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하면 다 자랑이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글썽... 자랑만 번지르르한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그나마 겸손했다' 싶었습니다.

다소에는 10년차 이상 되는 회원이 많습시다요, 그리고 평생회원도 많고요. 소모임도 여러 차례 수상경력이 있다고 들었고, 그 반기 어렵다는 '함께가는 회원상'을 받은 회원도 저를 포함(히히) 4명이나 된답니다. 화려한 수상경력, 활동경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이면에

숨어있는 내공과 저력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독려가 되고, 그 자부심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다소는 책 읽고 토론하는 게 가장 쉬워서 북카페 다소였던 적이 있습니다. 책 읽는 건 상시적으로 하고 나머지 모임에는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것을 찾아 유쾌하게 만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할 때나 영화나 연극을 보고 술 한 잔 기울이며 토론을 할 때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예리한 분석력과 상상력이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모임을 거듭할수록 알게 모르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나의 사고의 폭, 그리고 성장해 가는 서로의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몸으로 느껴질 수 있었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쿡! 아무튼 다소는 일상에서 재미난 내용으로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쾌하게 성장시키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유쾌하게 생활 속의 여성주의를 즐기면서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눈과 진중한 귀, 말랑말랑한 사고력을 가진 예쁜 활동가 **바람**
- 회원들의 시도 때도 없는 잘난 체를 시니컬하지만 상냥하게어나온서처럼 들어주는 활동가 사방사방 **하이디**
- 빠른 판단, 현실감 있는 행동력, 상근자 아니었냐는 말을 다년간 들어온 16년차 **오서방**
- 심오한 정신세계, 깨알 같은 옳은 지적, 회원활동 15년차 그리고 정책위원 **로미오**
- 예리하지만 유연한 만능 똑똑이 14년차 **유이**
- 가끔 빠빠하지만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소리 없이 강한 12년차 **엄산**

- 회의면 회의, 운동이면 운동, 사회면 사회, 언제 어디서건 '칼' 있으나 **오스칼**
- 언제, 어디서, 무얼 하더라도 각자 선 자리에서 '뚝' 소리 날 자랑스러운 **다라, 다래, 송주라, 와와, 악동, 강, 벤자민, 묘랑.**



이렇게 멋진 회원들이 2011년에는 몸과 마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 보고자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스탠트, 무술, 복싱, 검술 그리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갖가지 스포츠들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송년회나 총회 때 또 무대에서 뽐죠. 후~!

저는 2007년 가을의 끝자락, 한 무리의 이상한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민우회라는 강에 사는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공기로 담쟁이처럼 다함께 손을 잡고 한걸음 한걸음 여성주의에 다가가는, 신나지만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발걸음을 내 딛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만나게 된 것이 일생일대 영광의 장면이 되는 기쁨. 몸과 마음이 신나고 행복한 공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며, 그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연마해 가는 조약돌이 되어 보지 않으렵니까? **함**

오스칼 ●

백성(民)으로 40년을 살아왔고, 남은 인생, 이제 백성의 친구(友)로 살겠습니다. 돈 꾸준히 벌니다. 돈 꾸준히 잘 씁니다. 평생회원계의 헤트트를 위하여!

위대한 시작!

강선미(폴) ●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회원팀

지난 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내리면 사무실 걱정이 든다. 나루 건물 1층 커피문 차양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일까봐. 커피문의 최고 바리스타 **나디아**를 찾는 이유, 커피 말고 또 있다. 나디아가 봐주는 마법의 타로카드 점은 신통하다. 나디아의 점 덕분에 갈피를 잡아줄 나침반을 얻은 기분으로 올 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이여, 나디아에게 오라. 나디아의 커피문 파트너 **여진**, 아침마다 반갑게 맞이해준다. 카페지기로서 오늘의 소모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데 모조록 카페에 민우회원들이 북적이면 좋겠다. 밤이든 낮이든.

자. 3층으로 올라가볼까. 아침 9시 반 출근하면 **꼬깸**의 등이 보인다. 꼬깸의 특기는 전화 빨리 받기.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 전화벨은 활동가들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도 한다. 벨이 울리면 즉각적이다. 나도 벨소리를 들으면 딸각, 네 민우회입니다. 민우회를 사칭한다. 나와 꼬깸은 순대국 회동이 잦다. 주로 찬바람이 불면 순대국 생각이 간절하다. 그래서 폴, 꼬깸의 공통 연관검색어는 순대국. 꼬깸 뒷자리 **여경鏡**은 여성건강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여경鏡은 알록달록한 스타킹, 레깅스를 즐겨 입는데 겨울에도 여전하다. 그녀의 패션에 대한 고집을 따라잡고 싶지만 마들(model)같은 기력지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민우회에서 비주얼하면 또 **주가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긴 생머리, 부츠, 자가운전하는 여자사람 주가이. 지난 해 여름, 주가이의 뒷모습을 보고 젊은 청년들에게 헌팅을 받기도 했다는.

오전시간 회원들과 전화로 인사를 건네는 반차별·회원팀에는 싱그러운 싱기루, 하이!디, 아직은 괴상한 나라의 평범한 폴 그리고 새 활동가 모후아가 있다. **모후아**는 방글라데시의 어떤 새 종류라고 한다. 짧게 그냥 '모' 라고 부르기도. 한창 바쁘고 지쳤을 때(기부금영수증이었지) **싱기루**는 따뜻한 커피의



여유를 안겨준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쉽
일 때가 있다. 멋진 활동가. **하이디**는 정말 알프스 소녀 하
이디와 닮았다. 목소리도 성우처럼 곱달까. 그녀가 츠리닝
을 입고 온다면 그 날은 야근데이.

점심시간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나는 쪽은 보통 부설 성
폭력상담소 근방. 달쉐프는 못하는 게 없는 듯. **달개비**는
요리와 공작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재주꾼. 바쁜 연말, 연
초 **썬**은 모자와 안경을 자주 쓴다. 피곤을 감추기 위한 것
인 듯해도 그것마저도 어울리며 예쁘다. **너굴**은 설 때 모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긴다. 요즘은 무슨 게임을 하는
지,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
트레스가 쌓일까, 풀릴까. **하나**는 연애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에 하나에게 ‘올 해
에는 연애라는 걸 해보자’고 말했지. 이 바람만은 꼭 이뤄
지길. **오이**는 외부 회의, 강의도 많다. 그래서지 만나면 반
갑게 인사해주지. 종종 혼자 옥상에 오를 때면 오이 생각이
난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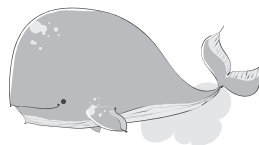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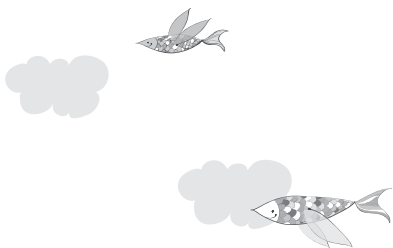
사무실에 올리는 다른 전화 벨소리 그것은 노동상담 전화.
바람이 받는다. 차분한 목소리의 소유자, 스마트폰이 아니어
도 곳곳이 트위터를 즐겨하는 바람. 책상 위 화분들 틈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은 있다. 안녕 바람! **나우**
에게 있어 갈치 그녀는 어떤 존재일까. 가끔 사무실에서 조
우하는 갈치, 이제는 말도 하고(갈치야, 내 이름 좀 기억해

줄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우에게 힘을 주면 좋겠다.
참, 나우와 절친이라는 얘길 듣기도 했던 **명균**. 명균은 민
우회 대표. 김인숙 쌤, 김쌤이라고 주로 불린다. 무엇을 드
시든 아주 야~무지게 잘 드신다. 보기만 해도 배불러. 아,
특히 맥주를 들이마실 때 목으로 꿀꿀꿀럭. 맥주 광고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청일점이라기엔 그닥 티도 나지 않는 **나은**. 나은은 자전거
로 출퇴근을 한다. 자전거와 관련된 문의라면 언제든 오케
이지 않겠나 싶다. 나도 나은에게 도움을 얻어 구입하였다.
종종 포커페이스로 보일 때가 있지만 아주 무뎌진 스타
일은 아니다. 나은 앞자리에는 **박봉**. 박봉은 무엇이든 잘
(정리하여)버린다. 책상의 깔끔함이란. 술도 좋아하고 특히
횃집을 좋아한다. 비유를 통한 유머 구사하기에 탁월하다.
정말 여러모로 귀감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날리**. 평
동에서 나루로 사무실이사를 했을 때 이미 망원동 주민이
었던 날리가 참으로 반기었던 기억. 날리를 보고 싶은 분은
맨 안쪽 자리로 오시길.

이제 빠진 사람은 없는가. 아, 〈함께가는 여성〉 새로운 담
당을 할 **케이**님과 노동팀의 **낭미**님이 이번 주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덕분에 산뜻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
다. 어떤 분들인지 회원님들은 총회 때 알게 될테다. 2011
년 팔딱팔딱 생동감있게 뽀박질하는 토끼처럼 민우회도
야호! :D **뽀**

풀 ● 올 해도 반차별·회원팀 풀, 어디 안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그 자체로 기쁜 일 기쁘고 싶어요.



나를 통과해 갔던 생각의 편린

임정우(고래씨)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이 기회에 삶의 어느 한때 내 안에 머물렀던 생각 몇 가지를 주섬주섬 모아 보기로 했다. 여러 조각의 형꺾을 대어서 만든 보자기 같은 글이 되었지만, 내 삶을 말해 주는 그 무엇이 또한 관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긴 글을 쓰려니 내 사유의 호흡이 짧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좋아하는 사람 따라 하기'의 역사인 것 같다. 좋아하는 친구가 고전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읽었고, 좋아하는 분이 서예와 전각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붓과 철필을 들었으며, 좋아하는 친구가 사진 찍는 것을 보고 나도 카메라를 장만했더랬다. 그뿐이라.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덩달아 좋아했고, 좋아하는 친구가 만년필 쓰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 하게 될까? 그리고 보면 내 몸에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는 셈.

사회학자의 눈, 철학자의 눈, 시인의 눈, 기자의 눈…….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면 이런 식의 유형화를 머릿속에 그려 보고는 한다. 이 중 가장 탐나는 것을 꼽으라면 내게는 철학자의 눈과 시인의 눈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내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

끼는 것 중 하나는 오해받는 일이다. 나는 '잘못 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읽히는 것'을 원한다." 말이란 늘 미끄러지기 마련이다. 말하는 주체와 말 사이에서도 서로 수없이 미끄러지거늘, 하물며 그 말을 듣는 타인과는 더하지 않겠는가. 오해를 어쩌면 언어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잘못 읽히느니 차라리 안 읽히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욕심 같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해가 최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한 '섬세하게' 말하는 수밖에. 물론 섬세함이 통 소용없는 작자들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자의식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나 싶다.

월급날이 내일모레로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야생화 백과사전 하나를 사 버렸다. 꽃에 관심 많은 지인들께 일단 자랑 문자를 보내고,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한 장한 장 넘기며 본다. 꽃을 보면 이 우주에 신이 없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릴 적 시골집에는 유난히 감나무가 많았다. 집을 뺑 돌아가며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사과나무며 앵두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도 한두 그루씩 있었다. 또한 '감나무'라고 하는 것도 두세 그루 있었는데, 그것





이 바로 고욤나무라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 하여튼 세간 살이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런 쪽으로는 우리 집이 상당히 부자였구나 싶다. 그런 나무들과 더불어 자랐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남들과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영향(影響)’이란 말에는 단독자로서의 나를 넘어 ‘다른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존재란 꼭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연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는,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관계와 죽은 관계를 구분해 주는 핵심은 바로 그 ‘영향’이 아닐까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은 곱씹어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꼭 있었던 것 같다. 한번은 명절이라 큰방

에 일가친척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고종사촌 녀석이란 씨름을 해 보라고 했다.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그 녀석이나 나나 어른들의 부추김에 없던 승부욕과 호전성이 발동되어 기어이 이기고야 말겠다는 식으로 달려들었다. 우리는 심각해서 죽겠는데, 어른들은 재밌어 죽겠다는 식이었다. 누가 이겼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압튼 서로 분기탱천했다는 것은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놓고 어른들이 그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평화주의적인 감수성이 몸에 배게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에 호전성을 불어넣어 기어이 서로 할퀴게 만들다니. 만일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끔찍한 일이다.

호주제 폐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렇게 되면 좋기야 하지만 그저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겼다. 그

만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부장적 문화의 뿌리는 대책 없이 깊어 보였던 것.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아무리 완고해 보이는 현실도 상상하는 만큼 녹여 낼 수 있겠구나’ 했다. 지금은 비록 공상에 불과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든 변화는 결국 이런 상상의 집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유명한 산악인이 있는데, 산을 오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고 오르지 않았다. 나는 유토피아에서 한번 살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난생 처음으로 찌릿하게 다가왔다.

직선과 곡선,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과학과 시, 보수와 진보, 다수와 소수, 집단과 개인, 세속성과 낭만성, 말과 침묵, 수직과 수평, 양과 음, 단순성과 복잡성, 경쟁과 배려, 있음과 없음, 밝음과 어둠, 야망과 무욕……. 현실에서는 결국 전자의 승리로 끝날 때가 많아 보인다. 후자는 전자에 대해 약간의 해독제 구실만 하는 것 같다. 언제나 지는 투쟁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때부터는 그런 투쟁이 싫어져서 세상을 등지고 돌아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 꽤 배주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허나 마음만 등질 뿐 몸까지 그러지는 못 하겠더라. 결국 몸과 마음의 그 거리가 내 슬픔의 원천인 듯도 하지만, 몸마저 돌아앉으면 이 생에 대해 참 미안할 것 같아서. 어쩌면 생에 대한 연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새벽이다.

낮의 삶을 지나 밤길을 어슬렁거린다. 언제부터 인지 내게 밤은 낮의 여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을 묵묵하게 받쳐 주는 근원적인 시간처럼 느껴진다. 사실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밝음이란 얼마나 가벼운가.

20대 시절, 나는 문화적, 지적으로 꽤나 강한 호기심에 불탔다. 그래서 철학아카데미나 민예총 같은 곳을 기웃거리며 강의도 듣고, 《키노》 같은 난해한 잡지를 읽으며 심오한(?) 영화 골라서 봤고, 안동립의 《이 한 장의 명반》 같은 책을 바이블 삼아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또 교보문고나 헌책방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들락날락했으며, 퇴근 후에는 청계천을 오가며 희귀한 영화를 수집하는 데도 몰두했고, 먹물들과 있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담론을 쉽게 입에 올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낮부끄럽고 밥맛이었겠다 싶은 게 많다. 그럼에도 그런 집중과 열정의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내면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기에 그냥 빙그레 웃고 만다.

이제 내게는 그런 뜨거움이 없다. 물론 여전히 책과 영화와 음악을 가까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탐욕적으로 취하지는 않는다. 책을 읽어도 지금은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잡는다. 오늘은 이 책을 보다가 내일은 저 책을 보다가 그렇게 찢끔찢끔 건드려 놓기만 한 것도 수두룩하다. 음악도 그냥 기분에 따라 골라 듣는다. 오늘은 은방울자매를 듣다가 내일은 생똥맞게 찬송가를 듣다가 또 다른 날은 정악을 듣다가. 몸도 마음도 어딘지 느슨하고 미지근해졌다. 여전히 나이롱스럽고 취향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렇게 혈령해진 나 자신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어떤 강박에서 풀려난 기분도 들고, 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대상을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것임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런저런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느끼한 것인지도 알겠기 때문이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대로 인생은 내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앎**

고래씨 ●

자전거, 할머니, 미취학 아동, 흑백 사진, 산사춘, 아나키즘, 지우개 달린 연필, 소백산, 오정희, 바쇼, 과거를 좋아하는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19일(수)
- 장소 :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0일(목), 오후 6시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강의실

강사 보수교육

- 일시 : 2월 7일(월),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세미나실

차이를 넘어 평등의 세계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성평등 교육

- 일시 : 2월 9일, 16일, 18일, 23일, 25일
- 장소 : 각 지역아동센터

제6기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 일시 : 2월 10일(목)~25일(금), 총100시간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중강의실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9일(토), 오전 10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실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실

한자교실(6급부터)/ 그림교실(수채화 그리기)

- 일시 : 한자교실 1/16부터 매주(일)
그림교실 1/15부터 격주(토)
- 장소 : 한부모그룹홈(담당: 권명애)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남서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임원선출, 2011년 계획, 예산 승인

- 일시 : 1월 19일(수) 오전 10~12시
- 장소 : 지부 교육장

민우어린이학고 '우리지역 바로알기 문화탐방'

구로, 양천, 강서구 일대 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 참가비 : 회원-10000원, 비회원-13000원
- 일시 : 2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 장소 : 양천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출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도봉여성센터(4층 보육정보센터 강당)

정월 대보름 지신밧기

풍물패 다푸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해를 계획,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와 지신밧기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월 13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다푸리공간(방학동 국민은행 건너편)과 도깨비시장과 방학동지역 일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5일(화)
- 장소 : 밝음신협 2층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월 9일(수)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사무실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1일(금), 오후 7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한자강사양성과정

한자 자격취득 및 한자강사양성교육

- 일시 : 매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진주여성민우회

1월 회원만남의 날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만들기

- 일시 : 1월 25일(화)
- 장소 : 명석 정운정회원 집

해쓷음수련회

- 일시 : 2월 11일~2월 12일
- 장소 : 장소미정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정기총회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발표

- 일시 : 1월 27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교동주민자치센터

● 독자마당 - 참여 200호 기념 퀴즈 정답 발표!

[편집자 주] 퀴즈의 정답을 어디로 보내달라는 안내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진 200호 특집퀴즈... 회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하튼, 당당히 발행 다음날 직접 참여를 들고 찾아온 1등 당첨자! 민우회 본부회원 '날리'에게 커피문 이용권(5,000원)과 함여구독권(1년)을 전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궁금하셨을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객관식

★객관식 문항 정답은 진하게 표시된 것입니다.

①생	태	적			②이	선	④미				
활			⑦이	십	사		인		⑥커		
속					구		대		피		
의					다		⑤회	식	문	화	
			수	요	③시	위					
					십						

가로
풀이

- ① 한국여성민우회는 창립의 목적을 정관 제 3조를 통해 밝히고 있지요. 민우회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②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두 명의 활동가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별로 이름도 아닌데 신기하기도 하지요. 이 둘의 별칭은 '너굴'과 '썸' 이랍니다.
-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죠. 민우회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단체로서 매년 2~3회씩 이것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 ⑤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꼭 필요한 이것! 2006년에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캠페인. ○○○○를 바꾸자!
- ⑦ 이번 돌아올 2011년 정기총회는 몇 차 총회일까요?

세로
풀이

- ① 민우회가 하는 여성운동의 기본 방향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죠! 함께하는 여성운동, ○○○○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
- ② 민우회 본부는 마포구 성산동 ○○○-○○ 나루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 요 녀석을 다시로 읽어야 총 6음절이 됩니다. 뒤에 ○○을 1음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 ④ 여성들을 많이 벗긴 채 일렬로 줄 세워놓고 점수 매기고 상도 주는 그런 행사를 공중파에서 중계하는 게 웬 말이나며 펼쳤던 운동이죠. 결국 민우회가 공중파에서 없애버린 그 행사. ○○○○ 방송중계 반대운동.
- ⑥ 민우회가 입주해있는 '나루' 1층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고소한 향기가 건물에 퍼져 나루활동가들을 행복하게 하죠. 전설의 바리스타들이 있는 곳. 그 곳의 이름은?

1. 다음 중 정관에 의하면, 본회의 목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직업능력 개발사업
- ②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 ③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 ④ 평화 통일사업
- ⑤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⑥ 4대강 개발사업

2. 200호를 맞이한 민우회의 얼굴. 조금만 발행일이 늦어져도 궁금해 못 참는다는 바로 그 잡지!

- ① 함께가는 여성
- ② 함께가는 여성
- ③ 먼저가는 여성
- ④ 뒤로가는 여성

3. 민우회는 2011년 1월 22일(토)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아닌 것은?

- ① 정관 개정
- ② 임원 선거
- ③ 예산 심의 확정
- ④ 상근활동가 이름 변경

(‘함께가는 여성’ 200호를 읽고 풀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만든 웹툰의 제목은?

- ① 곤동성생활백서
- ② 상냥한성생활백서
- ③ 명량성생활백서
- ④ 침울한성생활백서

5. 올해 서평문학상을 시상한 회원모임의 이름은?

- ①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 ② 세계로 갈래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 ③ 세계로 가는 여자들의 소설읽기 모임
- ④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스찾기 모임

● 만 우 알 림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던 신설꼭지 [새로운 페이지]의 필자로 모십니다.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계신 (선배)여성운동가 혹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아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면 민우회에 필자추천을 해주세요. 인생의 이모작 아니 다모작을 꿈꾸는 모두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womenlink.or.kr로 보내주세요.

신입회원 여러분 반가워요!

2010년 11월 초 ~ 2011년 1월 말

강미경	김자숙	서수철	윤희연	이효수	조현경
강유화	김지혜	서일준	은아	임옥자	천수정
고은혜	김진옥	서지영	이경아	임유경	천영신
곽인지	김최이윤	성은	이경은	임철민	최남춘
권박미숙	김하은	송경환	이금자	장옥남	최창연
김경은	김한결	신상기	이미녀	장희순	최혜경
김명희	김혜경	신성화	이미선	전진경	하승수
김명희	김혜련	신전숙	이미영(1)	정순옥	한승희
김미숙	김호	안은희	이백만	정원 정	한정원
김병민	박경림	안효임	이수민	인숙 정	허성빈
김선주	박길우	양곡서림	이수정(1)	재원 정	허수빈
김숙영	박보원	양정은	이슬비	지수 정	홍성수
김순덕	박수정	유미자	이신자	판순 정	
김영아	박은정	유수연	이윤경	현숙(1)	
김원숙	박정원	유은희	이지혜	조미순	
김원옥	서도성	유주옥	이한나	조지윤	

평생회원, 회비인상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초 ~ 2011년 1월 말

평생회원 김경은 문승숙 오성민 오영식 이은숙
회비인상 김인혜 박건 박은경 박정옥 박하윤경 이임혜경
 장서연 홍지명

한국여성민우회 4/4분기 결산보고서

(2010년1월1일부터~12월31까지)

(단위 : 원)

I. 수입내역	금액
회비수입	227,405,300
후원금	225,461,127
사업수입	71,609,590
기타수입	51,826,882
수입합계	576,302,899
II. 지출내역	금액
인건비	234,910,212
복리후생비	3,111,779
사무용품비	2,980,028
사무행정잡비	2,461,850
사회보험금비	15,556,307
소모품비	1,991,220
연대활동비	6,324,500
제세공과금	3,441,150
지급수수료	3,188,928
지급이자	17,767,754
통신비	5,906,685
회의비	951,470
나루운영비	3,741,084
정보홍보사업비	41,927,271
조직활동비	23,921,570
정책연구교육사업	67,492,467
재정사업비	63,162,990
지출합계	498,837,265
III. 당기수지차	77,465,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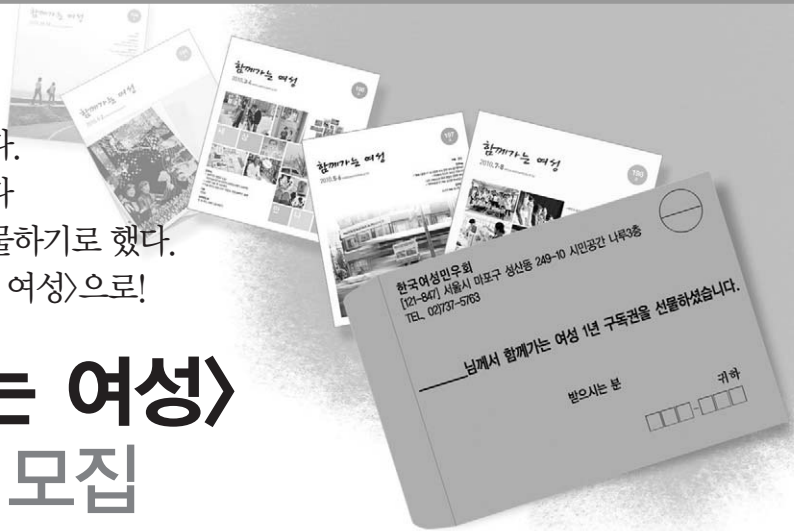
※ 2009년부터 분기별로 <함께가는 여성>과 민우회 홈페이지에 결산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공지 필자섭외에 어려움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지난 호에 이어 한 호 더 쉽니다. 또한, [민우칼럼 창]과 [기획]꼭지는 총회특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구생일 날이 되었다.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
올해는 민우회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함께가는 여성>으로!

<함께가는 여성> 구독회원 모집

- 신청 및 이야기를 보내주실 곳 minwoo@womenlink.or.kr 02.737.5763
- 1년 구독권 30,000원 계좌이체 813-25-0011-869 국민은행 (사)한국여성민우회



회원님들의 광고를 받습니다



아, 물론 기업이나 단체의 광고도 받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이 격월로 발간되는지라 긴급한(?) 광고는 불가할지라도 소소하지만 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전하고 싶은 광고를 받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행사, 가내수공업의 완성품 판매(?), 나누고 싶은 말말말!, 자랑하고 싶은 개인광고 등의 내용으로 <함께가는 여성>의 광고란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짜잔! 드디어

민우회 홈페이지와 모람세상이 2011년 1월 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 최근 이슈와 활동이 궁금하다면, 탁 트인 메인 창!
- ▶ 길게 펼쳐져 있던 페이지를 간소화한 체계적인 내용구성!
- ▶ 섬세한 붓 터치가 느껴지는 일러스트와 함께하는 회원 공간을 꿈꾸며, 작업했습니다. :D

이제는 여러분이 손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문을 연 홈페이지와 모람세상을 열심히 클릭! 클릭!해보면서
개편작업으로 생겨난 오류 찾기에 함께해주세요.
찾아내신 분은 메일(minwoe@womenlink.or.kr)이나
민우회사무실(02-737-5763 담당: 여경鏡)로 전화주세요.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orean WomenLink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회원문의

T. 02-737-5763
F.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T. 02-706-5050
F.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T. 02-734-1046
F.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T. 02-739-8858
F. 02-736-5766
상담 02-335-1858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T. 02-581-1675
F. 02-3679-2202

개포매장

T. 02-445-8703

반포매장

T. 02-537-8703

잠실매장

T. 02-417-870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T. 02-2643-1253
F. 02-2643-1252

생협 사무실

T. 02-2643-5016

신정매장

T. 02-2643-6060

목동매장

T. 02-2643-6077

서울동북여성민우회

T. 02-3492-7141
F. 02-3493-9221

생협 사무실

T. 02-3492-7140

방학매장

T. 02-3492-9999

중계매장

T. 02-934-7999

창동매장

T. 02-900-9958

고양여성민우회

T. 031-907-1003
F. 031-907-5009

상담 031-919-1366

생협 사무실

T. 031-918-9774

주엽매장

T. 031-919-1774

마두매장

T. 031-902-3774

덕양매장

T. 031-938-9774

후곡매장

T. 031-919-9854

광주여성민우회

T. 062-529-0383
F.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T.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T. 031-396-0201
F. 031-394-2343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T. 033-732-4116
F.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T. 032-525-2219
F.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T. 055-743-0410
F. 055-746-9771
상담 055-746-7462

생협 사무실

T. 055-746-7925

평거매장

T. 055-746-7077

춘천여성민우회

T. 033-255-5557
F. 033-243-9746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o@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http://womenlink1987.tistory.com/>

트위터 @womenlink

